2026년 4월 20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전쟁 vs 실적", 두 변수의 힘 겨루기

한국 증시는 1)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노이즈, 2) 케빈 워시 차기의장 상원 청문회, 3) 미국 3월 소매판매, 한국 4월(~20일) 수출 등 주요 지표, 4) 테슬라, 램리서치 등 미국 기업 실적, 5) SK하이닉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도주 실적 등에 영향 받으며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950~6,450pt).

이번 국내 주도주들의 1분기 실적은 3개의 관전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이 적절. 1) 연속적인 주가 반등 여파 속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셀온 물량 출회 여부, 2) 컨퍼런스콜 이후 주도주 내러티브 유지 여부, 3) 코스피 전반에 걸친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여부 등이 그에 해당. 일단 주 초반에 주식시장은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과 실적 시즌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변동성 확대 예상. 중반 이후 시장의 무게중심은 실적시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주도주 실적 발표 초반 단기 셀온 물량에 직면할 소지가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재료 소진 성격일 뿐, 증시 전반에 걸친 이익 모멘텀 개선 전망은 변하지 않았음을 감안 시, 주 중반 이후 코스피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17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미-이란 2주 휴전 이후 협상 기대감 이어지며 위험선호 심리 회복된 가운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실적 기대감, 원달러 환율 1,470원대 후반 레벨 하향 안정화, 외국인 순매도 기조 완화 등에 힘입어 양 지수 상승 마감 (KOSPI +5.68%, KOSDAQ +6.99%)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주말 중 미-이란 1차 협상 결렬 소식 등에 따른 유가 재급등 여파로 글박세를 보였으나, 이후 실적 시즌 기대감 속 반도체, 방산 등 주력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된 결과 낙폭 축소하며 혼조세로 출발. 특히,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23일) 기대감 반영되며 주 초반 외국인 자금 SK하이닉스로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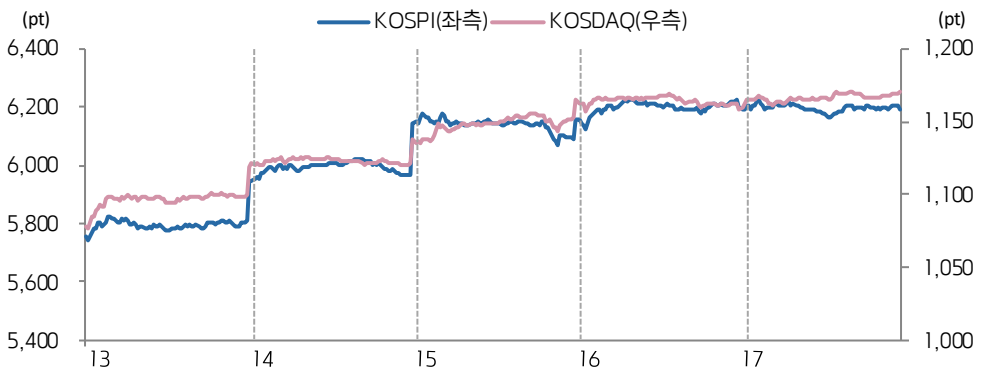
전쟁 리스크 완화+실적 시즌 기대감 조합 속 악재 민감도 둔화 국면 이어지며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고유가 레벨 우려는 잔존했으나, 2주 휴전 만료 시한(22일) 이전 협상 기대감이 위험선호 심리 촉매로 작용. 이러한 가운데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었으나, ASML, TSMC 실적 발표에서 모두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재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월 이후 20%대 상승하며 반도체주 상승 탄력 강화

외국인은 2월과 3월 코스피 시장을 약 56조원가량 순매도한 가운데 4월 들어 코스피 시장 약 6조원 가량 순매수하며 증시 주요 수급원으로서 작용. 전쟁 리스크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주도 이익 추정치 상향된 결과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7.5배 수준으로 저평가 레벨대에 위치. 반도체 외에 최근 1개월 간 건설, 상사 및 자본재, 증권, 에너지, IT하드웨어 등 여타 업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흐름 이어진 결과 호실적 기대감 속 국내 증시 반등 폭 뚜렷했던 한 주였음.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9.53%), IT 서비스(+8.34%), 전기/전자(+6.86%), 기계/장비(+6.01%), 제조(+5.97%)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송/창고(+0.45%), 부동산(+0.98%), 유통(+1.59%), 섬유/의류(+2.21%), 비금속(+2.4%)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6,490억원)은 화학(+4,218억원), 기계/장비(+3,548억원), 유통(+1,124억원), 보험(+826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1조 8,498억원)은 제조(+12,781억원), 전기/전자(+9,069억원), 금융(+4,794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4 월 20 일	월	독일	PPI (YoY)	3 월	-	-3.3%
		일정	**이창용 한은 총재 임기 만료**			
4 월 21 일	화	한국	~20 일까지 수출 (YoY)	4 월	-	50.4%
			~20 일까지 수입 (YoY)	4 월	-	19.7%
		EU	ZEW 서베이 예상	4 월	-	-8.5
		미국	**소매판매 (MoM)**	3 월	1.3%	0.6%
		실적	**GE 에어로스페이스, 유나이티드헬스그룹**			
4 월 22 일	수	한국	PPI (YoY)	3 월	-	2.4%
		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 **GE 베르노바**			
4 월 23 일	목	한국	**경제성장률 (YoY, 잠정치)**	1 분기	-	1.6%
		미국	S&P 제조업 PMI (잠정치)	4 월	-	52.3
			S&P 서비스업 PMI (잠정치)	4 월	-	49.8
		실적	**SK 하이닉스, 현대차, KB 금융, HD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POSCO 홀딩스, LG 화학** **테슬라, 램리서치**			
4 월 24 일	금	일본	CPI (YoY)	3 월	1.5%	1.3%
			근원 CPI (YoY)	3 월	1.7%	1.6%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4 월	-	86.4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4 월	48.5	53.3(47.6)
			미시간 1 년 인플레이션 (최종치)	4 월	-	4.8%
			미시간 5 년 인플레이션 (최종치)	4 월	-	3.4%
		실적	**기아, 현대모비스, 효성중공업, 우리금융지주, 삼성중공업** **인텔, 프록터앤드갬블**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호르무즈 해협 봉쇄 노이즈, 2) 케빈 워시 차기의장 상원 청문회, 3) 미국 3월 소매판매, 한국 4월(~20일) 수출 등 주요 지표, 4) 테슬라, 램리서치 등 미국 기업 실적, 5) SK하이닉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도주 실적 등에 영향 받으며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950~6,450pt).

17일(금) 미국 증시는 이란 외무부의 휴전 기간 중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발표에 따른 유가 10%대 급락, 미 10년물 금리 하락 등 위험선호심리 우위 환경이 조성된 영향에 힘입어 1% 대 급등세로 마감(다우 +1.8%, S&P500 +1.2%, 나스닥 +1.5%).

이처럼 금요일 미국 증시의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호재에서 기인했지만, 주말 이후 또 다시 반전을 맞이한 상황. 이란 외무부의 발표와 달리,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내부 분열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 이에 더해 주말 중 두 대의 인도 선박 피격 소식, 일부 수 척의 선박들의 회항 소식 등 호르무즈 해협은 재봉쇄에 들어간 실정.

트럼프 역시 이란의 재봉쇄를 비판하면서, 이란 선박을 나포하고, 발전소 타격을 경고하는 등 월요일 오전 현재까지도 사안이 복잡해진 모습. 물론 미-이란 전쟁이 수습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았기에, 양국 갈등은 협상을 위한 전술적인 수싸움일 가능성이 높음. 다만, 호르무즈 해협 노이즈가 월요일 장 개시 이후부터 협상 만료 시한인 수요일(22일, 한국시간) 오전까지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할 필요.

매크로상으로는 미국 3월 소매판매(MoM, 컨센 +1.3% vs 2월 +0.6%), 한국 4월 수출(~20일) 등 지표 이벤트를 치러야 하지만, 미국 금리 방향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21일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 청문회가 더 중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이슈(트럼프의 강한 지지로 지명), 대차대조표 축소(과거 케빈 워시의 QT 가속론), 인플레이션 시각 변화(AI 생산성 향상의 인플레이션 영향, 미-이란 전쟁의 에너지 인플레이션 영향)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

이를 통해 시장은 차기 연준의장의 첫 회의인 6월 FOMC에 대한 베팅 수정 작업에 나설 전망. 그 과정에서 현재 4.1%대 부근까지 내려온 미 10년물 금리의 추가 레벨 다운이 진행될 시, 밸류에이션상 할인율 부담 완화라는 증시 상방 재료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

주식시장 내에서는 국내외 주력 업종들의 실적이 메인 이벤트. 미국에서는 테슬라, 램리서치, 인텔 등 테크 업종 실적이 대기 중에 있음. 이들 실적을 통해 최근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의 정당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 일례로, 테슬라는 4월 초 확인된 1분기 전기차 인도량 쇼크를 통해 1분기 본업 부진 이슈는 소화한 상태. 이보다는 ESS 사업 성장세 지속 여부, 테라팹 프로젝트 구체화 여부, 로보택시 등 로보틱스 내러티브 재점화 여부 등이 국내외 ESS, 로보틱스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에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KB금융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금융 등 주도주들의 실적 이벤트를 치를 예정. 우선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3% 급등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중심의 1분기 실적시즌 모멘텀을 일정부분 소진했음을 염두에 둘 필요. 4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후 코스피의 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63조원에서 779조원으로 약 2주 만에 17% 큰 폭 상향됐으며, 이 같은 이익 컨센서스 상향이 최근 랠리의 주된 동력이었기 때문.

이를 고려 시, 이번 국내 주도주들의 1분기 실적은 3개의 관전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이 적절. 1) 연속적인 주가 반등 여파 속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셀온 물량 출회 여부, 2) 컨퍼런스콜 이후 주도주 내러티브 유지 여부(ex, 반도체: 메모리 병목 현상, 자동차: 로보틱스, 조선: 수주 사이클, 금융: 주주환원 등), 3) 코스피 전반에 걸친 이익 컨센서스 추가 상향 여부 등이 그에 해당.

일단 주 중반까지는 실적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전고점인 6,300pt 돌파를 시도해볼 수 있음. 다만, 이후 "미-이란 협상 노이즈 속 재료 소멸 인식에 따른 단기 셀온 물량" vs "2분기 이후 내러티브 및 이익 추가 개선 기대감" 등이 충돌할 것으로 보임. 주 후반부터는 고점 부근에서 수급 공방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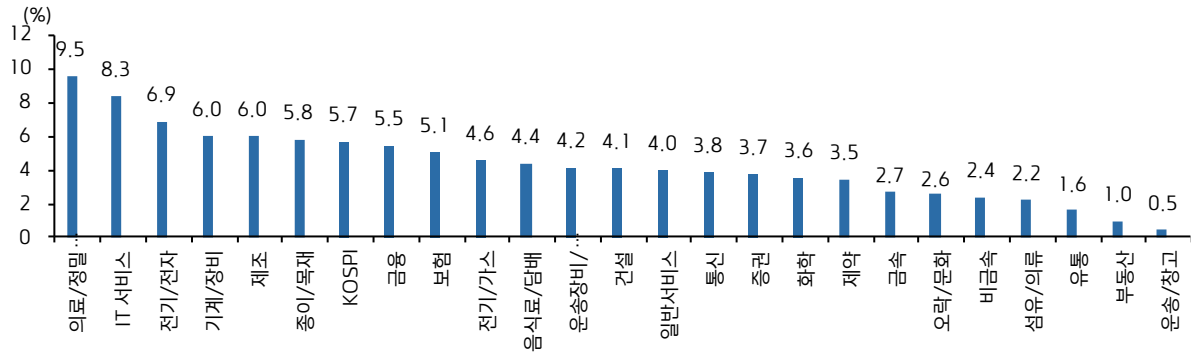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주 초반에 주식시장은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과 실적 시즌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변동성 확대 예상. 중반 이후 시장의 무게중심은 실적시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주도주 실적 발표 초반 단기 셀온 물량에 직면할 소지가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재료 소진 성격일 뿐, 증시 전반에 걸친 이익 모멘텀 개선 전망은 변하지 않았음을 감안 시, 주 중반 이후 코스피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전망.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191.92	-0.6	5.7	9.8	46.9
대형주	6,591.53	-0.7	5.7	9.8	50.6
중형주	4,740.63	0.4	6.0	10.8	27.4
소형주	2,899.84	0.3	3.3	5.6	15.2
코스피 200	931.41	-0.7	6.0	10.8	53.7
코스닥	1,170.04	0.6	7.0	2.9	26.4
대형주	2,804.43	0.2	5.5	-1.6	24.6
중형주	1,218.63	1.5	9.6	8.4	35.5
소형주	3,275.58	0.8	7.6	10.5	27.3
코스닥 150	1,966.83	0.0	5.4	-0.4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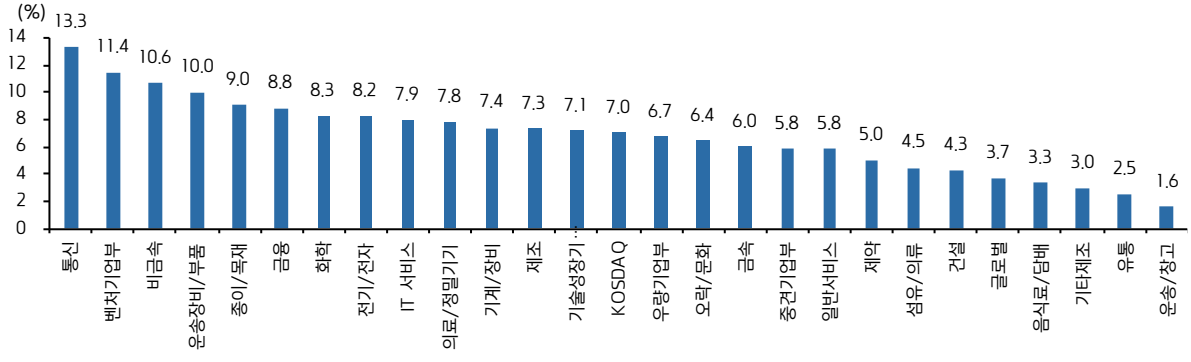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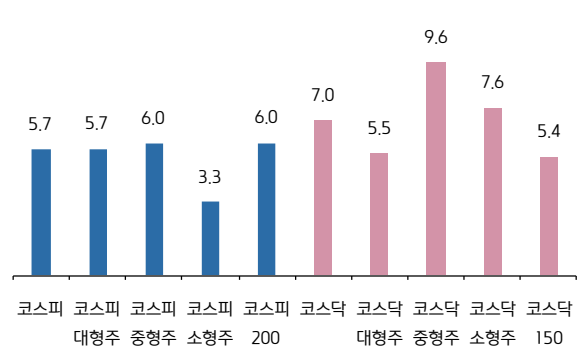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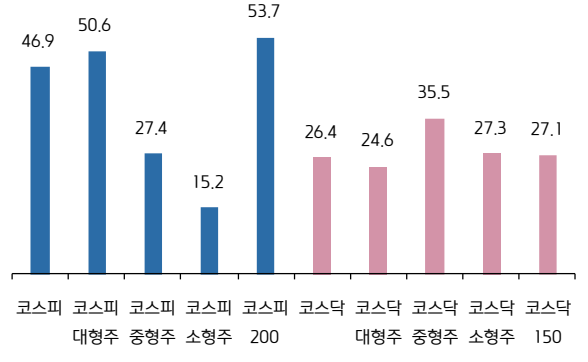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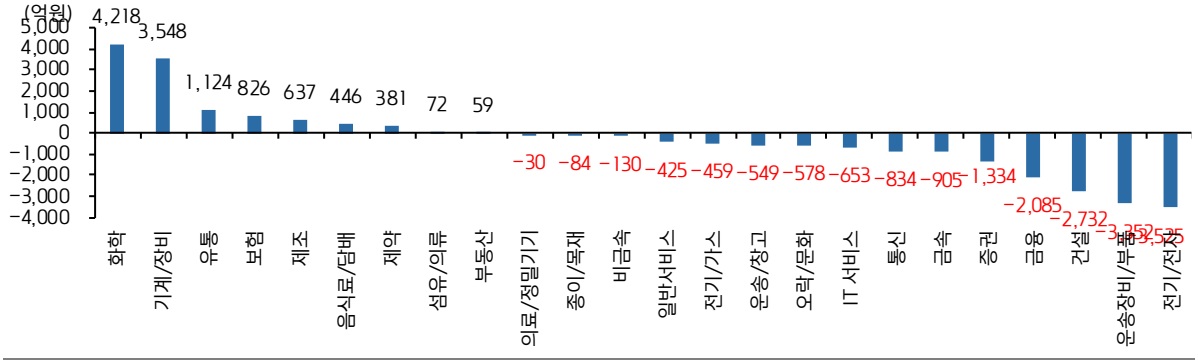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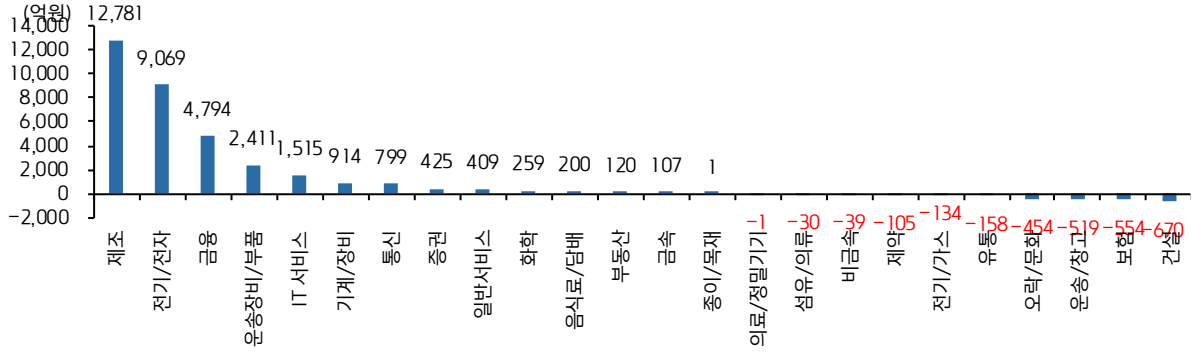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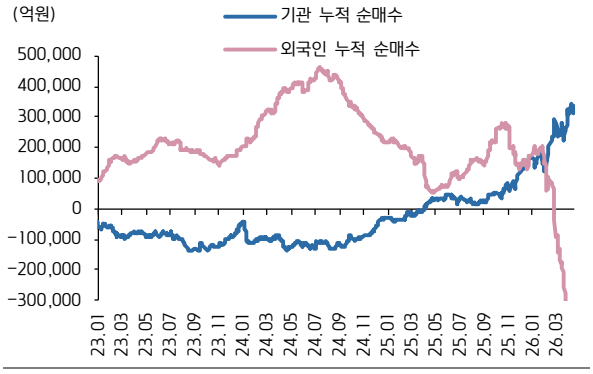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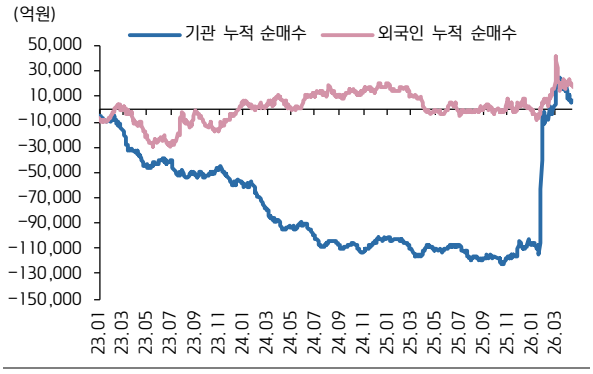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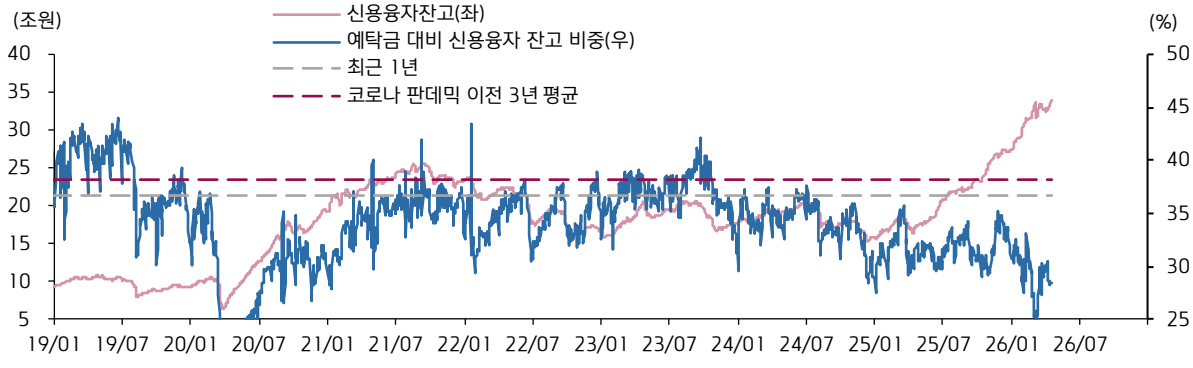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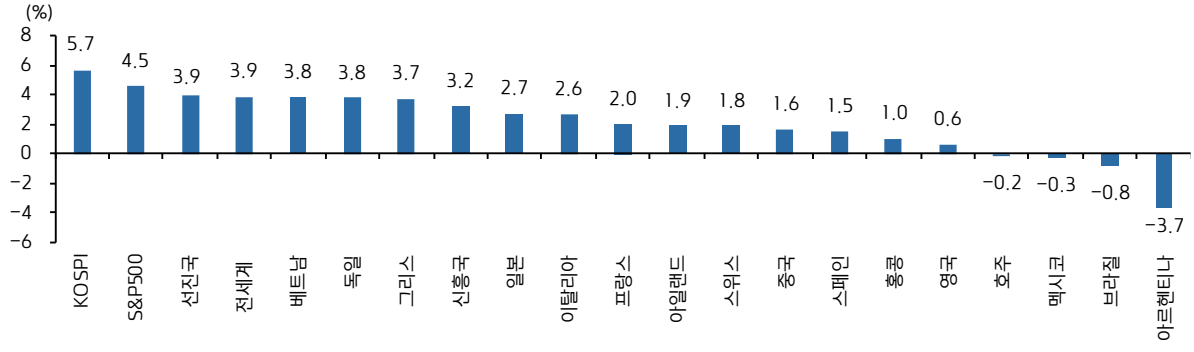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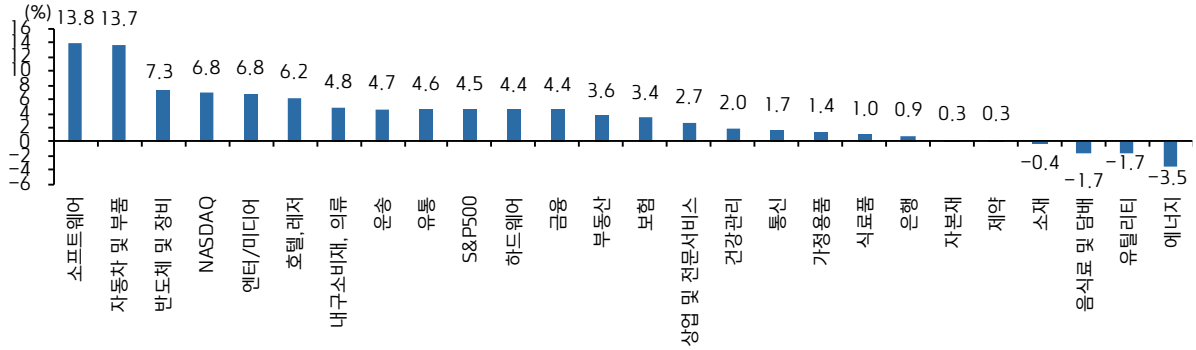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